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화재현장 방문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KT 아현사옥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5일째, 수백 여 임직원들의 분투는 계속 됐다. 28일 기준 임시 복구는 거의 끝났으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 됐다. 이날 기준 복구율은 무선 97%, 인터넷과 IPTV 99%, 유선전화 92%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복구를 하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5일째 계속 되었다.

현장에는 “노사가 함께 전사적 역량으로 신속복구·신뢰회복”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배식 등 차분하게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28일 오전 10시 30분경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일행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말을 통해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의 화재 사고였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물론 노사가 힘을 합쳐 신속한 복구를 해내는 것을 보고 고객과 시민들도 큰 감동을 받을 것” 이라고 말하고, “사고로 인한 이번 통신불통 사태가 잘 수습되고 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통신과 통신 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격려했다.

김해관 위원장도 현장복구 및 지원 활동을 하는 강북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격려했다.

한편, KT노사 상생센터 게시판에는 “매연과 그을음 속에서도 총력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현장 조합원과 협력업체 직원분들”을 응원·격려하는 감동적인 목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